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
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4월 1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4월 17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4. 15.(금)	담당부서	구주통상과
담당과장	이승렬 과장 (044-203-5660)	담 당 자	박달 서기관(044-203-5669)

중동부 유럽 신흥국에 민관사절단 파견

- 4.18~4.20간 폴란드, 루마니아 정부·업계 공동 수출확대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우태희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을 4.18.~4.20.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파견한다.

* 민간측 수석대표 :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이번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공단,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참여한다.

○ 민간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함께 에너지, 플랜트, 환경,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30여 기업이 함께한다.

□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의 관문으로 저렴한 생산비 및 우수한 인력 등 장점이 많아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이다.

* 한-루 교역액 11.5억 달러, 진출 기업 30여개, 한-폴 교역액 35억 달러, 진출기업 180여개 ('15년 기준)

○ 또한, 유럽지역의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신흥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 '15년 경제성장률(EU집행위) : 유로존 1.5%, 루마니아 3.6%, 폴란드 3.5%

□ 이에 이번 민관 사절단 파견 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서 1:1 상담회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행사 및 상담회에는 30여개 우리기업이 참여하여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바이어 100여명을 만날 예정이며,

○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번 방문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청정석탄 기술 등 우리 에너지 신산업을 수출 사업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4.18.) 폴란드 에너지차관 면담(4.20.) 등의 계기에 한국의 에너지신산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중동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특히, 폴란드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사업의 현지 적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친환경에너지 타운 : 기피·혐오시설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이와 함께 한국기업들의 중동부 유럽지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현재 중동부 유럽은 유럽연합(EU)의 지역개발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으로,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4.18), 루마니아(4.18) 및 폴란드(4.20) 비즈니스 포럼, 고위급 면담 등의 계기에 인프라 건설관련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요청하기로 했다.

□ 또한, 이번 계기에 산업부는 폴란드 경제개발부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어 양국간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기로 했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중동부 유럽은 유럽경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시장으로, 이번 민관 공동사절단 방문이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박달 서기관(044-203-56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inist
Indus